

수신 : 원장

참조 : 경영본부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1-37>

2001. 10. 19

KIEP 북경사무소

## 중국사회과학원 秋季報告(1): 금년 GDP 성장률 7.5%

### 1. 개요

□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7.5%로 예측된다고 사회과학원이 “秋季報告(2002년 경제형세의 분석과 전망)”를 통해 밝힘.

-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미국 테러사태 등 대외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 2008년 올림픽 개최, 내수확대 정책 등이 경제성장에 호재로 작용하여 금년과 비슷한 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2. 주요 경제지표 예측

#### 가. 금년도 경제지표 예측

□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의 예측치는 다음과 같음(표1 참조).

- 금년 농업생산 증가율은 2.4%, 제조업생산 증가율은 9.1%, 서비스생산 증가율은 7.1%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
- o 제조업중 중공업과 경공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9.4%, 9.2%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은 13.5% 증가한 3조 7,510억 원으로 예측되며,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 지수는 각각 -0.6%, 0.1%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도시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대비 6%, 농민 순수입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재 소매총액은 10.4% 증가할 전망이다.

□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조 5,800억 원, 재정지출은 동 20% 증가한 1조 9,050억 원으로 재정적자가 3,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국민저축잔고는 전년대비 16.6% 증가한 7조 5,020억 원, 신규여신은 1조 1,0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대외부문에서 수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2,430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2,590억 달러를 각각 기록, 무역흑자액은 160억 달러에 전망됨.

<표1> 2001, 2002년 주요 경제지표 예측

		2001	2002
GDP 및 산업지표	GDP성장률	7.5%	7.7%
	농업	2.4%	2.6%
	제조업	9.1%	9.0%
	서비스업	7.1%	7.5%
고정자산투자	총투자규모	37,510억 원	42,420억 원
	명목증가율	15.0%	13.1%
	실질증가율	13.5%	11.3%
	투자율	38.6%	40.0%
물가	소매물가	△0.6%	0.1%
	소비자물가	1.2%	1.5%
	생산자물가	1.3%	1.6%
	GDP 디플레이터	1.1%	1.4%
소득 증가율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6.0%	5.8%
	농민순수입	3.0%	3.1%
소비재 시장	소비재소매 총액	37,48억 원	41,270억 원
	명목증가율	9.7%	10.1%
	실질증가율	10.4%	10%
재정	재정수입(증가율)	15,800억 원(18%)	11,270억 원(17.3%)
	재정지출(증가율)	19,050억 원(20%)	22,770억 원(19.5%)
	재정적자	3,150억 원	4,240억 원
금융	국민저축잔고(증가율)	75,020억 원(16.6%)	83,220억 원(10.9%)
	신규여신	1조 1,020억 원	1조 2,910억 원
대외무역	수입(증가율)	2,430억 달러(8.1%)	2,640억 달러(8.6%)
	수출(증가율)	2,590억 달러(3.8%)	2,760억 달러(6.7%)

자료: 中國社會科學院, 《2002年 中國: 經濟形勢分析與豫測》(秋季報告), 2001. 10

#### 나. 내년도 경제지표 전망

□ 내년도 농업생산 증가율은 2.6%, 제조업생산 증가율은 9.0%, 서비스생산 증가율은 7.5%를 각각 기록할 것임.

- 제조업중 중공업과 경공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9.5%, 9.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은 금년에 비해 11.3% 증가한 4조 2,420억 元으로 예상됨.

-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 지수는 각각 0.1%,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자 물가지수는 1.6%, GDP 디플레이터는 1.4%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측

- 도시지역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대비 5.8%, 농민 순수입은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재 소매총액 증가율은 10%에 달할 전망

□ 정부지출의 증가로 내년 역시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것임.

-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조 8,530억 元, 재정지출은 同 19.5% 증가한 2조 2,770억 元으로 재정적자가 금년보다 많은 4,240억 元으로 예상됨.

- 국민저축 잔고는 8조 3,220억 元에 달할 전망이며, 신규 여신은 1조 2,910억 元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내년 수출은 2,640억 달러, 수입액 2,760억 달러로 무역흑자액이 금년에 비해 줄어든 120억 달러로 예상됨.

### 3. 거시경제 현황 분석

□ 작년 1/4분기 이후 연속 6분기 동안 중국 경제는 GDP 성장률 변동폭이 1%이내의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를 시현하였음.

- 그동안 중국경제는 7%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왔는바, 이는 성공적인 경제구조 조정, 경제운영의 질적 제고, 안정적인 물가 유지 등 장기적인 중국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큼.

- 특히 금년 1/4분기와 2/4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8.1%와 7.9%를 기록, 상반기 전체 경제성장률은 7.9%에 달하였음.

<표2> 중국의 공업생산·소비·투자

(단위 : 억 元, %)

항 목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상반기
GDP	78,435	81,911	89,404	-	-	-	19,895	-	-	-	42,942
성장률	7.8	7.1	8.0	-	-	-	8.1	-	-	-	7.9
공업증가액 (증감율)	20,046 (8.8)	20,307 (8.9)	23,685 (11.4)	1,695 (2.3)	1,934 (19.0)	2,239 (12.1)	5,868 (11.2)	2,266 (11.5)	2,279 (10.2)	2,398 (10.1)	12,811 (11.0)
전사회고정자산투자 (증감율)	28,406 (13.9)	29,855 (5.1)	32,619 (9.3)	-	-	-	3,878 (12.4)	-	-	-	11,899 (15.1)
고정자산투자 (증감율)	-	-	24,243 (9.7)	-	1,131 (16.7)	1,430 (13.9)	2,560 (15.1)	1,676 (18.6)	1,963 (20.3)	2,729 (18.6)	8,928 (17.9)
소비재소매총액 (증감율)	29,155 (6.8)	31,135 (6.8)	34,153 (9.7)	3,333 (12.5)	3,047 (8.6)	2,876 (9.5)	9,256 (10.3)	2,821 (9.7)	2,930 (11.1)	2,909 (10.0)	17,915 (10.3)
물가											
소매물가	-2.6	-3.0	-1.5	-0.5	-1.7	-0.9	-1.0	0.1	-	-0.1	-0.5
상승율											
소비자물가	-0.8	-1.4	0.4	0.9	0.1	-0.6	0.7	0.2	1.7	1.4	1.1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0년 수치는 <200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공보>

경제일보, 2월 고정자산투자는 1, 2월 합계임

□ 최근 불리한 대외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은 국내투자수요 증가에 기인함.

- 금년 상반기 투자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77%에 달해, 소비의 기여도 34%, 순수출의 기여도 -11%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금년 상반기 무역흑자와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도 중국경제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는바, 금년 상반기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2,410억 달러, 무역흑자는 81억 달러에 달했으며, 외국인투자(실행액)는 20.5% 증가한 20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또한 연내 WTO 가입, 2008년 올림픽 북경 개최 확정, 서부대개발 전략의 본격 실시 등도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외국인 투자 급증 등 상반기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정부의 일관성 있는 내수확대 정책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재정정책: 1998년 이후 중국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 금년까지 4년간 국채 발행액은 5,000억 원을 초과하였는바,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o 최근 국내외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확대 재정정책 실시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2002~2003년에도 확대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확실시됨.
  
- 그러나 지난 4년간 확대 재정정책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째, 40%에 달하는 높은 투자율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요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등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심화, 둘째, 지난 4년 동안 필요한 투자항목에 국채발행액을 이미 배정, 정부주도 투자의 한계수익률 감소, 셋째, 재정적자의 확대 및 정부 부채의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금융정책: 중국정부는 신규 대출 증대를 통한 내수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둠.
- o 그러나 ▲금융정책과 은행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인한 금융정책의 효율성 감소, ▲금융시장 시스템 개선 및 다양한 금융정책 수단 도입 필요성 대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국유기업 개혁 정책: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최근 개혁 심화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음.
- o 첫째, 자산 재조정의 지속적인 추진, 채무의 주식전환 기업의 채무 활성화 및 완전 탕감, 둘째, 주식제 추진 기업의 일부 채무 및 불량자산을 떠안은 모기업 개혁 착수, 셋째, 자산 재조정과 채무의 주식전환 및 주식제 개조가 미흡한 기업에 대한 개혁 본격 추진(\*\*\*)

## 1. 1-9월 외자이용액 321.96억 달러

- 외경무부에 의하면 1-9월 외국인직접 투자 건수는 전년동기비 18.14% 증가한 18,585건, 계약액은 30.35% 증가한 493.47억 달러, 실질 이용액은 20.66% 증가한 321.96억 달러임.
- 2001년 9월말 현재 누계 외국인투자 건수는 382,930건, 계약액은 7,260.66억 달러, 실질 이용액은 3,808.2억 달러임.
- 금년도 외자유치의 양호한 형세는 중국내 외국인투자가 지난 수년간의 정체 상황을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 신규 투자중 대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및 다국적 회사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외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 및 인재를 중점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외자의 전체적인 이용수준을 향상시킬 것임.  
(經濟日報, 2001. 10. 14)

## 2. 중국 1-9월 수출 증가율 둔화

- 세관통계에 의하면 금년 1-9월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3,763.7억 달러, 그중 수출은 7% 증가한 1949.8억 달러, 수입은 11.2% 증가한 1,813.9억 달러, 누계 흑자는 135.9억 달러임.
- 9월 수출입총액은 4.9% 증가한 458.4억 달러, 그중 수출은 4.4% 증가한 239.9억 달러, 수입은 5.5% 증가한 218.5억 달러, 무역흑자는 21.4억 달러
- 1-9월 일반무역 수출입 총액은 13.4% 증가한 1,684.9억 달러, 그 중 수출은 7.4% 증가한 828.2억 달러, 수입은 19.9% 증가한 856.7억 달러임.
- 9월 일반무역 수출은 9.8% 증가한 102.4억 달러
- 1-9월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은 4.1% 증가한 1,757.2억 달러, 그중 수출은 6.6% 증가한 1,072.2억 달러, 수입은 0.4% 증가한 684.9억 달러임.
- 1-9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11% 증가한 1,897.6억 달러로 대외무역 총액의 50.4% 차지, 그중 수출은 12.9% 증가한 967.3억 달러, 수입은 9.2% 증

가한 930.3억 달러임.

- 집계, 사영 및 기타 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54.6% 증가한 240.7억 달러, 그중 수출은 48.3% 증가한 139.7억 달러, 수입은 64.2% 증가한 101억 달러
- 지역별로 볼 때 1-9월 대미 수출은 4.8% 증가한 403.1억 달러, 대일본 수출은 8.3% 증가한 647.4억 달러로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지위를 유지함.
- 1-9월 기계전기제품 수출은 12.5% 증가한 856.3억 달러로 전체 수출총액의 43.9% 차지, 9월 수출액은 106.1억 달러로 수출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함. (國際商報, 2001. 10. 13)

### 3. 국가발전계획위 경제연구소, “단기적 수출지원책 불필요”

- 최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경제연구소가 출판한 “거시경제형세분석보고”에 의하면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침체 및 수요하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중국의 수출둔화를 단기정책으로 자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고 또 불리하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전반적인 세계시장 수요의 동시 하락이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보다 뚜렷하게 크다고 함.
- 對美 수출의 급감, 일본과 유럽의 수입감소가 수출 위축의 결정적인 원인임.
- 국내의 경우, 수출세환급율의 상향 조정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세 환급 속도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음.
- 국제적 경험으로 볼 때 세계적인 수요하락 상황에서 통화절하나 수출촉진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바, 오히려 수출제품 구조 조정과 부가가치 향상 및 생산경영 코스트 인하를 통해 수출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보고서는 또 지난해부터 일반무역의 수입 증가폭이 수출증가폭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바, 수입제품의 범람을 막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WTO 가입에 따라 중국시장이 필연적으로 외국상품의 증점 타깃이 될 것인바, 중국에 대한 외국상품의 저가덤핑과 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밀수와 외화도피 문제도 새롭게 나타날 것임.
- 금년 1-8월 일반무역 수입증가율이 21.4% 증가한 반면 수출은 7.1%을 크게 상회하였음. 또한 수입중 가공무역 관련 수입증가율은 1%대에 불과한바 결국 일반무역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한편으로 WTO규범에 부합되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외국상품의 저가 덤핑을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밀수와 외환도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함.(工商時報, 2001. 10.15)